주요업무공유 토론 15일 오전 광주시청 3층 협업회의실에서 '광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주제로 열린 주요업무 공유 미팅 자리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이 도시계획·공원녹지 직원들과 소통 토론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본궤도 오른다

광주·전남·전북 2024년까지 기념사업 공동추진

비엔날레 특별전·무등산 남도피아 조성 등 시행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올해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1천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전라도 천년 기념일을 '2018년 10월18일'로 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30건을 확정했다. 기념사업은 4천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전라도 이미지 개선과 문화유산 복원을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천년기념 스탬프 투어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천년 기념 해외 호남 향우 고향방문 행사 ▲광주 희경루 중건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조성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사업 등 9건의 자체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간 화합과 상생 사업을 통한 유대감 확대를 위해 공동협력사업 6건도 추진한다.

공동협력사업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전라도 천년 기념 청소년 문화 교류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 운영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전라도 천년 국내외 관광 홍보 등이다.

또 광주시는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를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하며, 전남도는 '전라도 천년 정원'을, 전북도는 '전라도 새천년 공원'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1월1일 천년 맞이 타종식을 광주에서 연데 이어 3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을 개최하며 10월18일에는 전북에서 천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전라도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전국적 인지도를 쌓을 사업도 마련됐다. 광주시 등은 전라도의 미래 발전상과 다가올 천년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전라도 천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해 전라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라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전라도의 탄생부터 근현대 전라도까지 시기별로 인문지리, 사회경제, 정치(역사적 사건) 등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총망라한 '전라도 천년사'도 편찬·보급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전라도 천년 시간여행을 위한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한 3개 시·도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대탐험단 운영,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전라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 전라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주관
전라도 이미지 개선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북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광주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전남
전라도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청소년 문화교류	전북
	명품여행상품 운영	전북
	천년 기념 스탬프 투어	광주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전남
	국내외 관광 홍보	전남
전라도 천년기념식	천년맞이 타종식	광주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전남
	기념식 및 문화행사	전북
학술 및 문화행사	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광주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광주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	전북
	전라 밀레니엄展	전북
	'전라천년' 특별공연	전북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특별전	전남
	해외 호남 향우 고향방문 행사	광주
	국제 관광 컨퍼런스	전남
문화유산 복원	광주 희경루 중건	광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전북
	나주목 관아 복원	전남
랜드마크 조성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광주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전북
	전라도 천년 정원 조성	전남
전라도 천년숲 조성	무등산 남도피아	광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전북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전남

"당원명부 유출 의혹 중앙당 조사가 우선"

이병훈 "광주시장 경선 컷오프 기준 조기 확정해야"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동남을위원장이 15일 "중앙당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자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모 출마 예정자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그는 "당내 경선 과정에 일어난 불미스런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내 경선은 철저하게 정책 위주로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며 "입지자간 네거티브 경쟁은 주민의 선거에 대한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내 조사 및 입장정리 등 사실 여부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당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초기부터 입후보자간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민주당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경선 입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김옥자·서미정·전진숙 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김옥자 서미정 전진숙

광주시의회 김옥자(국민의당·광산3)·서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전진숙(더불어민주당·북구4) 의원이 15일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주관 '2018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여성 지방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고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대상자를 결정했다.

김옥자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등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생활정치에 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미정 의원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 발의' 등으로 평등정치에 기여한 것이 호평을 받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등으로 맑은 정치에 관련해 주목받았으며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예산 편성 및 여성과 관련한 주제에 관해 이슈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인정받았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손금주 '전두환·노태우 경호 금지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은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노씨는 지난 14일 31주기를 맞은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해 평균 3억여원의 세금이 전두환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